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7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가 쓰는 역사,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 테크 강세: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 경신
- 이런 전쟁 장기화 → 글로벌 경기 심리 압박
- 미 소비자 심리 위축 지속, 기대인플레이션 ↑

Summary

미국증시는 기술주 주도로 상승 마감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 보임. S&P 500 지수는 0.80% 상승한 7,165.08로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63% 급등한 24,836.60에 마감하며 주요 지수 중 가장 강한 흐름을 보임.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6% 하락한 49,230.71로 대형 경기민감·가치주의 상대적 부진을 반영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43% 상승한 2,787.00으로 마감함. 섹터별로는 인텔·ARM 등 반도체 호실적과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생산 본격화 기대가 겹치며 성장·AI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함.

반도체, 18거래일 연속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및 최장 랠리 기록을 경신함. 나스닥과 나스닥 100 지수도 동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엔비디아는 4% 넘게 상승하며 시총 5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인텔 주가는 24% 상승하며 1987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함. 인텔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 미국 정부의 수익률은 300%를 기록함. 다만, 이렇게 급등한 반도체 지수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상황임.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월가 구루 중 한 명인 마이클 버리는 "iShares 반도체 ETF(SOXX) 풋옵션을 매수하여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밝혔고, 증권정보포탈에 따르면 3월 30일 이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건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SOXS)로 약 2억 6,486만 달러에 달함. 또한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40% 이상 상회하는 이례적인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0년 6월 이후 처음임. 또한 상대강도지수(RSI)는 82 이상으로 상승해 극단적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미국-이란 협상 교착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를 방문한다는 소식과 미국도 협상팀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는소식에 WTI 원유 선물 가격은 장중 3% 이상 하락을 하는 등 '추가적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파키스탄을 포함해 오만,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밝힘.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3척(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제럴드 R.포드, USS 조지 H.W. 부시)의 항공모함이 중동에서 동시에 작전 중이라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림. 피터 해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항공모함들의) 이란 봉쇄 작전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무임승차 시대는 끝났다"고 밝힘. 한편 CNN은 미국이 휴전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군사 방어 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함.

잇따른 경고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 석유 생산량이 분쟁 이전 수준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약 1,450만 배럴 규모로 전 세계 일일 원유 소비량의 약 15%에 달하는 수치임. 이는 역대 오일쇼크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가 과거 오일쇼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힌 바 있음. 골드만삭스는 해협이 완전히 안전하게 재개방되고 추가 공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원유 공급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IEA는 원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공급 부족 현상이 향후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함. S&P 글로벌 회장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혼란으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의 영향이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비료, 헬륨, 알루미늄, 석유화학 제품 등 전 세계 공급망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4월 최종치는 49.8로 잠정치(47.6)보다는 상향됐으나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는 등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를 재확인시켰음. 특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8%에서 4.7%로, 장기 기대가 3.5%까지 치솟으며 에너지·생활물가 불안을 반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란 전쟁 관련 휴전·평화협상 기대와 더불어, 연준이 고물가와 경기 둔화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기 완화로 선회할 수 있다는 베팅을 확대하며 주식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모습 보임. 유럽과 영국 증시는 여전히 이란 전쟁, 에너지, 소비 위축 우려로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 기술주 강세와 이란-미국 간 대화 진전 기대가 글로벌 위험 선호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됨. (다우 -0.16%, 나스닥 +1.63%, S&P500 +0.80%, 러셀2000 +0.43%)

특징종목

AI·반도체 강세

아마존(+3.5%)은 Anthropic과의 AI 협력 확대와 AI 클라우드 ARR 증가, 위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Globalstar 인수 추진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음. 알파벳 클래스 C(+1.4%)는 Anthropic에 100억 달러 투자와 구글 클라우드의 AI 인프라 강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대한 월가의 낙관론이 동시에 작용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음. 엔비디아(+4.3%)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AI 붐의 최대 수혜주 지위를 재확인했는데, AI 관련 GPU 수요 급증과 '보유하라, 트레이딩하지 말라'는 월가 코멘트가 추가 상승 기대를 자극함.

인텔(+23.6%)은 1987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엔비디아·테슬라·구글·스페이스X·xAI 등과의 전략적 제휴와 강한 1분기 실적, AI 서버·파운드리 수요 확대 기대가 동시 반영된 랠리였음. AMD(+13.9%)와 암홀딩스(+14.8%)도 각각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부문 호실적, AI CPU 수요 급증 기대를 바탕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하며 AI 반도체 업종 전반의 리레이팅 흐름을 강화함. 퀄컴(+11.1%)은 대형 기관의 대량 매수와 여전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AI 단말 성장 기대가 부각됐고, 시놉시스(+9.6%)는 TSMC와의 협력 확대 및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대규모 지분 취득 소식으로 EDA·IP 섹터 내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재평가되는 모습임.

일라이릴리 약세

일라이 릴리(-3.7%)의 새로운 체중 감량제인 파운다요(Foundayo)는 출시 이후 저조한 판매 실적을 보이며,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약세를 보임. IQVIA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운다요가 출시 2주 차에 3,707건의 처방만 받은 반면,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용 체중 감량제인 위고비(Wegovy)는 2주 차에 18,410건의 처방을 받음.

실적 결과에 상반된 모습

뉴몬트(+8.7%)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중반대 증가를 기록하고, 약 31억 달러(약 4조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잉여현금흐름과 자사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함. 금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광사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과 배당·바이백 정책이 부각되며 안전자산·배당주로서 매력이 재평가됨. 차터 커뮤니케이션즈(-25%)는 상반된 실적 결과에 주가가 급락함.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당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함. 다만, 자본 지출 증가로 인해 잉여현금흐름이 12% 넘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트럼프 행정부, 파월 조사 중단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31로 소폭 하락했으나 주간 기준으론 상승세를 유지하며, 미·이란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금리 상단을 지지하고 있음. 영국 10년물은 4.93, 독일 10년물은 3.01로 각각 물가 우려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 속에 높은 수준을 유지함.

유로화, 제한적 강세

달러인덱스(DXY)는 98.53으로 0.2% 하락했으나 주간 기준 0.4% 오르며 달러 강세 기조

가 이어졌고, 유로/달러는 1.17로 0.3% 반등해 미·이란 평화협상 기대와 ECB 회의 관망 속 제한적 강세를 보임. 달러/엔은 159.38로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여전히 엔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달러/위안 6.83, 달러/원 1476.64로 아시아 통화 전반에 달러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이 지속됨.

유가, 주간 큰 폭 상승

상품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94.40으로 하루 1.5% 하락하며 상승 랠리를 일부 되돌렸으나, 주간 기준 13%대 급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임. 브렌트유는 105.33으로 0.3%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천연가스는 2.52로 3.5% 추가 하락하며 18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금과 은은 각각 4709.27, 75.63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주간 기준으로는 조정 국면을 이어가며, 커피와 구리 등 원자재 전반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둔화 리스크 사이에서 종목별 차별화를 보이는 중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